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0월 27일(주일) 제1267호

동빙고 근린공원 청소년 시설 착공

청소년 수련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체육관 등 조성

동빙고 근린공원 착공예배를 지난 25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영수 장로(남유산업 대표), 당회운영위원, 장로중보기도모임, 목회자 및 리더십, 시공사 (㈜동립종합조경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동빙고 근린공원이 다음세대와 지역사회를 살리고, 섬기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영수 장로(분당B공동체, 남유산업)는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이 하나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원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소망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는 “차세대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많이 쌓아서 훗날 교회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임희창 장로(차세대 대표장로)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고, 열방을 품는 믿음의 장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는 축복의 터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호 장로(양지차세대담당)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지역사회 어른들까지 아우르는 장소가 생겨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공사가 잘 되길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 강상섭 대표이사(동립종합조경)는 “한강, 남산, 용산가족공원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이



지난 25일 열린 동빙고 근린공원 착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시설이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시설 조성공사 부지는 동빙고 근린공

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2, 69-163)이다. 면적 55,740.70㎡(대지면적 26,849㎡, 사업제한부지, 사유지), 건축연면적 7,589.22㎡(청소

년수련시설 4,193.55㎡, 국공립어린이집 737.12㎡, 체육관 945.73㎡ 등)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늘(27일)까지 다음세대 응원단 모집

오늘(27일)까지 2020년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를 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 받은 성도가 대상이다. 신청은 서빙고, 양재, 도곡 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교사모집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서빙고, 양재, 도곡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최소 197명, 사랑부는 최소 43명이 더 필요하다. 나머지 캠퍼스 교사 모집 행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평택 온누리교회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

오늘 오후 5시 30분 2층 본당

평택 온누리교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2층 본당에서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이번 달 초 예배처소를 이전했다. 새 예배처소는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739-2번지 아원프라자 2~5층 건물이다. 평택 온누리교회 본당은 아원프라자 2층에 있다. 약 350명,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2층에는 본당

외에도 자모실, 목회지원실, 새가족실, 담당목회자실 등이 있다. 3층에는 차세대를 위한 예배처소, 4층과 5층에는 성가대실과 사이닝글로리가 있다<관련기사 6면>.

평택 온누리교회 가는 방법은 평택역에서 1-1번, 2번, 15번, 20번, 80번 버스를 타고 신흥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문의: 010-2222-9714

2019 엔젤트리 사연 접수

2019년 엔젤트리 사연을 모집하고 있다. 엔젤트리는 가족, 이웃, 동역자에게 선물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는 캠페인이다. 11월 3일까지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사회선교 안내데스크, 목회지원실, 온라인(naver.me/G082bTcR)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물 받을 이웃들의 사연, 주소(도로명), 필요한 선물을 작성하면 된다. 모집된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4일부터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전시된다<관련기사 7면>. 문의: 02-3215-2469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레위기 26:40-46(10월 28일 본문)

본문 주제: 회개(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영상 제목: 거룩한 목마름 - 이주연 목사

내용: 거룩한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할 때 마음속에 회개의 열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다면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

로 가기 위한 거룩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com/ygPRaGN6wY>

적용질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 유튜브 생중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 30일과 31일 저녁강의가
유튜브에 무료로
생중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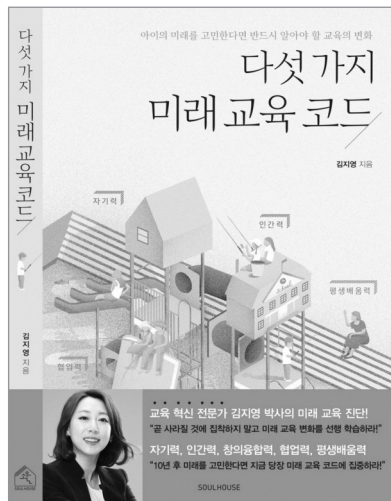
10월 30일 19:00~21:00
성경은 순전하다 / 필립 라이큰

10월 31일 19:00~21:00
말씀을 외치라 / 브라이언 채플



책 읽어주는 목사

미래학적 관점에서 본 인재상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
김지영 저 | 소울하우스 | 14,000원

이 책에는 작은 글씨로 ‘아이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의 변화’라는 부제가 있다. 저자는 우리에게 “아이를 순방향으로 키우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YES”라고 답하기에는 머뭇거리게 되고 찜찜한 마음이 들 것이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이를 위해 많은 세미나와 책들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다. 하지만 실제 가정 안에는 난감함, 연약함, 막막함이 가득하다. 전문가들의 말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경과 관계,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래학적 관점에서 본 인재상은 멀티 플레이어이자 리더십이 강하고 경험이 많으며,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분석적 사고,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난 아이라고 말한다.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로는 전문지식, 창의적 인성, 미래 핵심 역량을 꼽고 있다. 미래 핵심 역량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분석적 사고,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이다.

이 시대는 NQ(Network Quotient)가 높은 인재를 원한다. NQ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쉽고, 협력하기 쉬우며, 동반 성장을 하기 쉽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로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만들어 보는 것, 종이 박스로 강아지 집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작

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것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와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 관심, 자신감을 키우는 경험이 창의성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

미래에 급증하는 비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 역량이 필요하다. 고차원적 역량에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다문화 감수성들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인재가 ‘지식 노동자’였다면 앞으로의 인재는 ‘인사이트 노동자’다. 인사이트 노동자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리치 레서가 새로운 미래 노동자의 모습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인사이트 노동자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본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아이, 혼자 성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협력하는 기쁨의 맛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저자는 이를 위한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자기력, 인간력, 창의 융합력, 협업력, 평생 배움력)를 제시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 방법으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는 힘을 길러라’, ‘기계에 맞설 인간으로서 저력을 키워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고와 습관을 길러라’, ‘

다름을 도움으로 만드는 역량을 길러라’, ‘배움을 지속 가능하게 하라’고 제안한다. 자녀를 잘 키우는 소원을 이루려면 부모부터 이 다섯 가지에 도전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부친 차세대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부모들 대부분이 ‘자녀들의 대학’이라는 미래적 목표를 향하여 같은 길을 달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행복과 기쁨을 유보한다. 대학을 성취하고 난 이후 가져야 할 행복과 기쁨이 저 멀리 달아나고서야 현실을 직시한다. 거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경쟁자를 추월해서 자기가 사회의 일등이 되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누구나 가는 길이므로 당연히 나도 가는 것, 잘못된 길을 서슴없이 가려는 어리석은 용감함마저 보인다. 믿음과 세상이 합해져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부모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에 맞춘 미래를 보아야 한다.



김지영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차세대)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자신을 살인하는 심각한 죄다(출 20:13). 그러나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성경은 하나님이 값을 치른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다고(골 2:13-14) 선언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극심하게 연약해진 상태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유 1:24).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감과 이기심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진 자이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마음의 증거이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후 13:5).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또한 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신 32:39). 그래서 사울(삼상 31:4-5)과 가룟 유다(마 27:5)의 자살에서 알 수 있듯 성경은 자살을 심판과 수치와 죄라고 언급한다.

성경은 자살을 절대 본받을 만하거나 고귀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살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리라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살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버리는 행위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

다”고 말하고 있다.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성경에 자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언급은 없다. 마태복음 12장 30-32절에서 언급하는 죄는 고의적인 거절과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이 굳어진 마음으로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말한다(히 6:4-6).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자살을 포함할 수는 없다.

깊은 실망과 우울 혹은 절망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도 절망스러운 적이 있었지만 놀라운 자연현상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 또한 잔잔하고 작은 목소리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했다.

우울증은 종종 염려나 충족되지 않은 이기심과 교만의 형태, 기대감 혹은 죄책감과 같은 숨겨진 죄의 열매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때로는 약물치료가 병행되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속의 깊은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마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딤후 3:16-17).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은 성경의 원리들과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정으로 절망과 우울 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살은 결코 용인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도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과 기쁨을 얻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자살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 행위자에 대한 정의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서경남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참된 회개(7) 타락한 몸의 행실 죽이기

로마서 8:12~13

“타락한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내쫓고
죽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참된 회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임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마음에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옛 자아의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옛 자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생각, 세계관, 언어와 문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순된 모습을 가리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body’가 아니라 ‘flesh’입니다. 옛 자아의 영향력, 죄 가운데 있었던 옛 성품,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성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옛 자아의 영향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옛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 있는 모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12~13절).”

13절에 나오는 ‘몸의 행실’에서 ‘몸’은 12절에 나오는 ‘육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몸의 행실이란 곧 육신의 행실입니다. 여기서 행실이란 어떤 외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행위를 일으키는 내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죄악 된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적인 원인과 성향, 방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바로 이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빚입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을 빌려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는 비유입니다. 일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은 종이 100일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것인데 백 데나리온처럼 얼마든지 탕감할 수 있는 문제를 용서하고 있지 않은 모순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도 빚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사용한 ‘테텔레스타이’(Τετέλεσται)라는 단어는 당시 “다 지불되었다, 완불했다”라고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이 있다면 언제나 채권자에게 이끌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하고, 요구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언제나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죄에 빚진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흉악한 것이고, 그 자체가 끔찍한 것이기에 “당신은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의 빚진 자로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시편 50편에서 다윗이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모태죄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빚진 자가 되어서 죄에 이끌려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빚을 다 지불했다. 너는 죄에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직 갚을 빚이 있다”고 속입니다. “다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써주신 영수증을 사탄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은 옛 자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과 죄를 짓는 성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치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육신은 우리에게 불법침입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빚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죄의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순이 있습니다.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욕심, 이끌려가는 욕심의 성향들을 죽여야 합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단어가 매우 교묘하고 음흉하게 우리 가정에 숨어 있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몸의 행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음란, 어느 가정은 도박, 어느 가정은 미움과 분노, 다툼과 시기, 어떤 가정은 재물, 어느 가정은 겉은 교양인이고 신앙인, 문화인, 교육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 육신의 행실이 교묘하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보겠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사는 어느 유명한 변호사에게는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하였지만 매일 법률사무소에 나갈 때마다 시카고의 한 도로를 걷는데 술집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들어갔고 아첨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걷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그의 여섯 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눈을 피해 집에서 빠져 나온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작은 발로 아빠가 남긴 큰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술집 문밖에 서서 아들이 자기가 남긴 모든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려 집에 있는 아내에게 데려다주고 아래층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제 발걸음이 제 아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이 제 자녀를 당신께 인도하도록 하옵소서.”

여러분의 발자국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와 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세상의 공격은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념을 위해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정에 대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원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네가 집과 가족을 위해 싸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가족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상처 주는 일이 생길 때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오, 옳은 일을 위해 싸우십시오. 진리 위에서 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집에 데려오고, 자녀에게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강한 역사가 일어나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고,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 가정과 가족에 맞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육신과 반대되는 은혜의 역사

13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건을 체험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돕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죄 죽임(On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책을 쓴 청교도 존 오웬(John Owen)은 세 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 육신과 반대되는 은혜의 역사를 넘치게 일으키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죽일 수 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23절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역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내쫓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면 더 이상 조급함과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키심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성도를 징계했고 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13면에 계속)

기획 크리스천을 위한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1. 체면 2. 불평불만 3. 걱정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4%에 불과하다

걱정 96%는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음 40%, 과거 30%, 중하지 않음 22%, 불가항력 4%

요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유행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다. 신앙생활에서도 미니멀 라이프가 꼭 필요하다. 그토록 자유로워야 할 크리스천들을 옥죄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미니멀 라이프 세 번째 코너는 '걱정 버리기'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걱정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다'라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 근심, 염려, 수심(愁心) 등이 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다양한 걱정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서 쓸데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어찌 보면 당연해보이지만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다.

C 자매(41세)는 어머니의 임종 당시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걱정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걱정까지 정말 끝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밥은 누가 챙겨줘야 할지, 오빠와 올케언니에게 '너희가 아이를 둘 낳으면 얼마나 좋겠니?'라고 하시면서 걱정했고, 당시 미혼이었던 저에게는 '네가 결혼하는 걸 봐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하셨어요. 또 '직장은 다닐 만하니?'라며 걱정하시더라고요. 임종이 임박해서 가족들에게 유언이나 당부를 남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가족들 걱정만 하시는 걸 보면서 자식 된 입장에서 불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을 접어두고 편히 눈 감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한이 남아요."

남녀노소 모두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10대는 진로문제, 20대는 등록금(학비)과 취업, 30대는 비싼 주거비, 40대는 자녀 교육비, 50대는 자식 결혼, 60대는 노후 걱정을 한다. 한평생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을 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통계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40%, 이미 지나간 일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4%라고 한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의 96%는 쓸데없거나 중요하지도 않다는 소리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하고 있는 셈이다.

걱정은 없던 병도 만들고 키운다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영국 속담)
걱정이 심하면 없던 병도 만들고 키운다는



것을 반증하는 속담이다. 지난 9월, 방송인 전현무가 JTBC '막 나가는 뉴스쇼'에 출연해서 "오메가3, 미네랄, 종합비타민, 스피룰리나, 엽산, 비타민B 등 너무 많은 약을 먹고 있다"면서 건강염려증을 털어놓아 화제가 되었다.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는 신체형 장애다.

한국인들의 건강염려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있다. OECD의 '건강통계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만 15세 이상 한국인 중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작 32.5%였다. OECD 평균 수치인 6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한국인은 연간 17회나 된다. OECD 평균 6.9회보다 2배 이상 높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실제로 한국인 중에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염려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무려 5%나 된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전사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초조해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불안, 절망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질병이나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걱정이다.

운 것이 바로 걱정이다.

걱정이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것은 여러 속담과 명사들의 명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티베트 속담), "걱정은 머리를 희게 하고 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독일 속담), "근심에 묻혀진 생애는 죽음을 빨리 부른다"(맹자), "걱정이란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데일 카네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근심이다"(H. 비처).

성경은 걱정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언급이 무려 365회나 나온다. 성경은 걱정과 근심의 폐해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욥 17:7),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고(시 31:9), 심령이 상하며(잠 15:13), 뼈가 마르고(잠 17:22),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후 7:10)고 경고한다.

우리가 할 일은 걱정 대신 기도

현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고, 잠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걱정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레 걱정을 한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

소하고 풀어야 할까? 걱정 대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계속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다.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펠전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빛을 지지 않았다고 한다. 교회 건축, 고아원 설립 등 방대한 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절대로 빛을 지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무명의 현금이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스펠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걱정거리를 글로 적어보는 것이 좋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현상을 해석하는 매우 이성적인 행위이다. 감정과 이성만 마치고 시소 같아서 감정이 강렬해지면 이성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걱정거리(감정)를 글(이성)로 적어보자. 그리고 나서 '이 걱정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자. 걱정거리가 왜 생겼는지 보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생각하면 막연했던 감정의 윤곽이 잡히고 구체화된다.

걱정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다. 아더 랭크(영국)라는 실업가는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했다. 하루라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을까를 생각하다 묘안이 떠올랐다. 월요일부터 생겨난 걱정거리를 전부 적어 '근심함'에 집어넣고 수요일에 근심함을 열어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날만 근심을 했다.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대체로 해결되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걱정거리 대부분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아더 랭크는 걱정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중대한 것도 아니며,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걱정하는 일을 그쳤다고 한다.

오늘, 당신의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걱정은 지나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걱정도 흘러간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몰두하자. 기억하자.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4%에 불과하다.

세상에 근심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상담학 Ph.D)

찬송가 369장 ‘죄 집 맡은 우리 구주’의 1~3절 가사에는 모두 ‘걱정 근심’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2절 가사의 한 소절은 이렇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롭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렇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이거나 악물의 힘으로 잠시잠깐 감정을 눌러둔 경우일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세 가지 이유

나는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절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살았다. 주로 공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공부를 강요해서 힘들지는 않았다. 나 스스로 근심걱정이 많았다. 고등학생 때는 시험이 있으면 한 달 전부터 긴장되고 늘 불안했다. 미리 시험 볼 과목들에 대한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표대로 공부를 했다. 문제는 내가 계획한대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은 다가오고, 봐야 할 책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늘 불안과 걱정으로 시달려야 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첫째, 성격적인 기질에서 오는 이유다. 완벽주의와 철저함,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다. 그 기준을 맞추려다보니 걱정 많은 것이다.

둘째,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문제이다. 한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 늘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잘 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험을 잘 쳐야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이나 이후 진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내가 가장이 되었다. 그때 내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구나’였다. 그 생각은 내 삶에 좋은 측면이 되기도 했지만, 늘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을 떠안은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야 조금씩 걱정과 근심의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침투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에 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셋째, 환경의 요인이다. 사람은 환경의 동

물이다.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겹치면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태복음 6장 25~34절 말씀은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첫째, 걱정은 인간만 한다. 마태복음 6장

나 염려가 생기는 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걱정이나 염려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걱정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은 외부환경에서 올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다.

구약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다. 그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싸우기 힘들다는 것이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걱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과 계획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

은 동물이나 식물은 전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공중의 새를 보면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신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길쭉도 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으로 걱정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염려나 걱정은 좋고 나쁨이 아니다. 염려나 걱정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적절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 삶에 긴장을 줘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을 괴곤하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과도하게 근심하고 걱정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부른다. 때마침 불안과 긴장이 많고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이

없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크고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나 쾌락을 소유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전환시킨다. 과거의 행복론은 주로 긍정적인 정서는 있지만 부정적인 정서가 없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을 말했다. 주관적 행복이란 지나가는 시간에 경험하는 쾌락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제한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정서 빼기 부정적인 정서를 계산했을 때 주관적 쾌락이 많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행복은 인간생활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다. 처음에 원하는 것을 소유해서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된다. 그래서 주관적 행복은 지속적인 행복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반면 현대 긍정심리학자들은 가치지향적인 행복론을 제시한다. 이것을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부른다. 심리적 행복이란 한 개인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느끼는 행복을 말한다. 감사, 인내, 용서, 사랑 등과 같은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행복을 이야기한다. 심장발작을 처음 경험한 187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역경을 겪고 난 다음 신체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이 남성들 중에서 50% 이상이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나서 7주 후에 인생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심장발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건강하게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역경을 경험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됐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행복감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도 나온다. 늘 걱정과 근심에 시달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생각과 삶이 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그에 맞게 행동했다. 고난과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기쁨과 보람, 감동의 삶으로 바뀌게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뎃서 쾌락의 총량을 높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적인 삶,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심리적 행복을 지향할 때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 행복론은 고통과 역경의 제거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도 의미 있게 해석하면 참된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킨다.

셋째,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34절 말씀이 믿음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그날 걱정만 하고 살면 된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잠시 걱정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크고 넓어진 만큼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기울이겠습니다”

평택 온누리교회 13년 만에 예배처소 이전

평택 온누리교회가 13년 만에 예배처소를 이전했다. 새로운 예배처소는 평택시 용이동 아원프라자 2~5층이다.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손신국 목사(평택 온누리교회)는 “예배처소가 더 크고 넓어진 만큼 전도와 선교에 더 많은 열정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선, 홍하영 기자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한 평택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

평택 온누리교회가 13년 만에 예배처소를 이전했다. 평택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가 있는 평택시 용이동은 교통이 편리한 주거단지다.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근처에 초, 중, 대학교가 있다. 안성IC와 인접해있고, 한창 건축 중인 안성스타필드가 차로 10분 거리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아원프라자 건물 2층 전체와 3~5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2층에는

본당, 자모실, 목회지원실, 새가족실, 담당목회자실 등이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 본당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을 아담하게 축소해놓은 모양이다. 한 번에 350명, 최대 40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본당 오른쪽에는 자모실이 있고, 왼쪽에는 새신자실과 담당목회자실이 있다. 새신자실 바로 옆에는 담당목회자실이 있다. 새신자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려는 손신국 목사의 목회철학을 반영했다.

차세대부터 성가대, 사이닝글로리까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층은 차세대를 위한 공간이다. 꿈방, 예뮈, 파워웨이브 예배처소가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30~40대가 주를 이루는 젊은 교회인 만큼 차세대를 위한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벽면에 안전패드를 둘렀다.

파워웨이브 예배처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도 큰 변화다. 예전에는 장소부족으로 외부 교육관에서 파워웨이브 예배를 드렸었다. 새 예배처소로 이전하면서 파워웨이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되면서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다.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들이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인 성도들이 파워웨이브 학생들을 위해 영어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4층에는 성가대실이 있다. 최대 40여 명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찬양사역팀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교회 리더십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5층에는 사이닝글로리(카페와 식당)가 있다. 최대 15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예전 예배처소에서는 법적 제한이 있어 식당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준비한 간단한 간식을 나눴다. 오후까지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식사가 문제였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처소에서는 식당을 만드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주일에는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식탁공동체가 차려진다. 이제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간단하게나마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후까지 교제하고, 양육 받고 있다.

예배처소를 이전하면서 평택 온누리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공동체, 사역팀 할 것 없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새신자를 교회에 데려올 때 주차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양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식사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손신국 목사는 “성도님들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쏟아 붓는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역칼럼



손신국 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듯이 평택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 역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당회의 관심과 결단, 다른 캠퍼스들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안전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안전성, 편의성,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전 건물의 노후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비가 새기도 하고, 건물에 금이 가기도 했다. 예배 공간부족, 주차문제 등 편의

성 역시 떨어졌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성도님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너무나 위험했다. 매년 백여 명 이상의 새신자들이 평택 온누리교회를 찾아왔지만 전체 예배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예배처소 이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전대 담당 목사님들과 리더십들 역시 예배처소 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기회에 평택 온누리교회에 꼭 맞는 새로운 예배처소가 마련됐다.

예배처소를 이전하고 평택 온누리교회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교회 안에 활기가 돌고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성도들의 기분이 한껏 들떠 있다. 무엇인가 더 해보려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각 사역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겠다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사역팀도 생겼다. 주차안내팀이 신설되어 성도님들의 주차를 돕고 있다. 이전 예배당 주차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반면교사 삼

아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했다. 넓어진 주차공간에 성도님들의 차가 한가득 들어오는 기쁜 날을 상상해본다.

평택 온누리교회에도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무리 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 휠체어를 끌고, 지팡이를 짚고 예배당을 찾는 성도님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차세대를 위한 공간에도 신경을 썼다. 소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예뮈, 꿈방실을 꾸몄다. 파워웨이브실에는 예배 후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성가대실과 사이닝글로리(카페 및 식당)를 마련해서 필요에 맞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공간이 새로 생긴 성가대는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한 찬양을 준비한다. 성가대실 밖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뭉클해진다.

사이닝글로리에 모여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자발적으로 식사봉사를 위해 헌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신다.

평택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소망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성도들의 은혜에 비례한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들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돕고 싶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이제는 감사와 찬양,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지면을 빌려 평택 온누리교회 예배당 이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신 담임목사님과 당회, 다른 캠퍼스들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교회, 선교지,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엔젤트리 사연을 모집합니다”

11월 3일까지 사연신청서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

매년 연말이면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세상에 둘로 없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세워진다. 엔젤트리다. 엔젤트리에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겨운 사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엔젤트리에 매달려 있는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다. 엔젤트리는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선물을 보내주는 캠페인이다. 올해 엔젤트리에 달릴 이웃들의 사연을 11월 3일까지 모집한다. 우리 주변에 사랑과 관심이 꼭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5년부터 실시한 엔젤트리 캠페인 후원률은 100%다. 놀라고, 자축할만한 수치임이 틀림없다. 매년 연말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세워지는 엔젤트리에는 우리 이웃들의 사연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그 사연만 해도 수천 건이다. 2015년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엔젤트리 사연자에게 연말선물을 100% 보냈다. 2015년 2,045건, 2016년 1,505건, 2017년 2,598건, 2018년 3,729건의 사연자에게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냈다

전도하고, 위로하고, 꿈을 응원한다

엔젤트리 캠페인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공휴사역이 아니다. 가족, 동역자,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캠페인이다. 아빠를 전도하는 딸을 도와주고,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을 위로하고, 피아니스트가 꿈인 아이에게 메트로놈을 선물하면서 전도하고, 위로하고, 꿈을 응원하는 천국잔치다. 그동안 엔젤트리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이 매달렸다.

“안녕하세요. 교회 바로 앞집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교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내의를 선물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향한 열어붙은 마음을 녹이면 좋겠습니다.”

최 모 어르신을 위한 사연이다. 그 어르신은 교회에서 보내준 내의를 선물 받고 교회에 닫힌 마음을 활짝 열었다. 최 어르신의 사연처럼 엔젤트리에는 전도를 위한 사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의 비전을 응원하는 사연도 있다. 피아니스트가 꿈인 해빈이를 위해 메트로놈을 선물해 달라는 사연도 있었다.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는 해빈이는 가정에서 매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지출되고 있는 비용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해빈이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최 어르신과 해빈이처럼 엔젤트리를 통해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힘을 얻었다”, “나도 이 사랑을 나누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큰 힘과 사랑을 받고 또 나누고 있다.

나눌수록 기쁨과 행복이 두 배!

그런데 직접 선물 하는 게 빠르고 효과적인데 왜 번거롭게 사연을 쓰고 뽑는 엔젤트리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사연을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과 행복이 두 배로 커지기 때문이다.



온가족이 참여하는 엔젤트리는 기쁨과 은혜가 더 풍성하다.

박인숙 집사(용산공동체)는 “엔젤트리 사연이 전달되고 후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연 대상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큰 은혜를 받는다”면서 “이 좋은 행사를 이웃 교회와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경희 권사(양천공동체)는 “엔젤트리 사연 카드를 뽑아 그 내용을 보고 기도하면서 선물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서 “진심을 담은 사연일수록 행복이 배가된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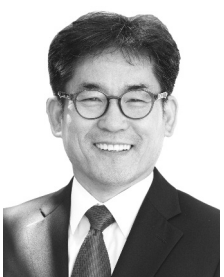
올해 엔젤트리에 달릴 사연을 11월 3일까지

모집한다. 엔젤트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naver.me/G082bTcR)으로 접수하면 된다. 엔젤트리 신청서는 주일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사회선교 안내데스크와 목회지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가족, 동역자, 이웃들의 사연과 선물 받을 주소(도로명), 3~5만원 내의 선물을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4일부터 4주 동안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전시된다.



엔젤트리 온라인 접수

사역칼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엔젤트리는 원래 미국에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넓혀서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아 진행하는 엔젤트리는 평상시 돌보지 못했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다.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바빠서 미처 옆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엔젤트리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이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과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면서 죽어가는 인간을 방치하실 수 없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막 10:45).

이것이 엔젤트리의 정신이다.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 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엔젤트리를 하는 목적이다. 물론 ‘일 년에 한 번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장

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도전과 소망을 주게 된다. 엔젤트리는 성육신적 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뽑은 엔젤트리 사연 중 하나는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10대 소녀를 위한 사연이었다. 트레이닝복 한 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나는 그 소녀에게 어울릴 만한 트레이닝복을 구하려고 몇 군데 상점을 돌아보았다. 마치 딸에게 보내 줄 선물을 고르는 아빠처럼 신중하게 선택했다. 소망과 용기를 담은 예쁜 카드와 함께 옷을 택배로 보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소녀가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 이후 길거리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을 보면 그 아이가 떠오르곤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접수된 많은 사연을 보면 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수준의 요청

이 많았다.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의 클릭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접수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속성은 받고 나누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엔젤트리 캠페인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엔젤트리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사랑의 선물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사연을 접수하는 것이다. 둘째, 접수된 사연을 읽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여의지 못하다면 둘 중 한 가지 방법에는 반드시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항구에서 만나는 조선의 선교역사

1. 군산항

항구는 복음의 통로였다!

선교역사와 근현대사가 살아 숨 쉬는 군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그 지리적 특성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항구에는 저마다 선교 역사가 서려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를 다녀보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근사한 선교여행이 가능하다. 본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꼭 한 번 해보면 좋을 여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항구에서 만나는 조선의 선교역사’이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바다 건너 조선에 오기까지 험난한 여정과 그 속에 숨어 있는 눈물겨운 사연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몸소 보여준 민족사랑, 나라사랑도 만나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전라북도 군산항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하는 배 모형(위), 수덕산공원에 세워진 전킨과 드루 선교사 선교활동 기념비(아래).

항구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옛 항구는 신문물이 전해지는 통로이기도 했고, 약탈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서해의 대표적인 항구 군산항 역시 바람 잘 날 없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군산항의 역사는 이렇다. 군산항을 찾은 두 부류의 이방인이 있었다. 하나는 빼앗고 지배하려는 일본인들이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지금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군산 근대화거리에 가면 근대 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면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일본식 가옥 히로쓰, 경제수탈을 목적으로 일제가 세운 은행들의 모습으로 세워진 근대 미술관과 건축관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이해하기에 좋은 여행지는 역시 군산이 으뜸이다.

군산항을 찾은 또 한 부류의 이방인은 빼앗고 지배하기 위해 온 일본인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복음 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들어온 이방인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라 부른다. 군산항으로 입항한

선교사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왔다. 군산 근대화거리 골목골목을 누비다보면 작은 언덕이 나온다. 수덕산공원이다. 그윽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이 작은 공원에 가면 전킨(W.M. J. unkin) 선교사와 드루(A.D. Drew)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기념비를 보고 있으면 이 낯선 땅에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로이 고군분투했을 두 선교사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차오른다.

드루와 전킨 선교사가
써내려 간 군산의 선교역사

군산항을 가장 먼저 찾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료선교사 드루였다. 1894년 3월 30일 드루 선교사가 군산항으로 들어왔고, 그 이듬해인 1895년 3월 전킨 선교사가 왔다. 전킨 선교사가 군산에 오면서부터 본격적인 군산선교가 시작됐다. 두 선교사는 수덕산에 두 개의 가옥을 마련했다. 한 곳에는 예배처소, 다른 한 곳에는 진료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이어나갔다. 찾아오는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활발해질 무렵 군산항을 비롯한 군산 장미동 일대를 일본인들이 장악했다. 군산항을 이용해서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였다. 1910년 당시 군산 주민의 절반 정도인 약 8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군산에 들어왔다. 총과 칼을 든 일본인 앞에 군산 주민들은 대부분의 농토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전킨과 드루 선교사도 일본의 만행을 피해가지 못했다. 선교활동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전킨과 드루 선교사는 구멍(지금의 구암동)로 선교활동 지역을 옮기고 ‘군산선교스테이션’을 구축했다. 그리고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 나갔다. 가장 먼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부터 세웠다. 남학생들을 위한 영명학교(현재 군산제일중·고등학교)와 여학생들을 위한 뽕밭당 여학교(현재 군산영광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선교 확장을 위해 병원을 세웠다. 그 덕분에 훨씬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다.

군산선교스테이션과 군산3.5만세운동

군산선교스테이션의 흔적이 지금도 구암동에 남아있다. 구암교회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암교회로 올라가는 언덕에 ‘군산3.1운동역사공원’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바로 이곳이 군산에서 벌어진 3.1운동의 근원지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언덕을 조금 오르다보면 벽면에 군산의 선교역사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그 역사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걷다보면 언덕 꼭대기에서 태극기 모양의 바람개비들이 휘날리고 있는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푸른 잔디밭에 심겨진 수십 개의 바람개비들을 따라 걸으면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앞에 도착한다. 옛날 군산선교스테이션 자리에 세워진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영명학교의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바로 그곳에서 군산 선교역사의 흐름과 군산에서 벌어진 독립운동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을 며칠 앞둔 1919년 2월 28일 영명학교 졸업생 김병수가 서울에서 독립선언서 200장을 들고 영명학교를 찾아왔다. 독립선언서를 받아 든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 박연세, 송현호, 김수영이 독립선언서 3,500장을 인쇄

하면서 군산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장날이었던 3월 6일 ‘설애장터’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했는데 거사일을 이틀 앞두고 일제에 발각되고 만다. 독립운동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지만 영명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만세운동 계획을 하루 앞당겨 3월 5일에 실시했다. 바로 이 만세운동이 호남최초의 만세시위로 기록된 ‘군산3.5만세운동’이다. 이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1층에는 군산 선교역사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당시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 군산선교스테이션의 지형도, 영명학교와 뽕밭당 여학교의 옛 모습 등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여러 체험기구를 통해 군산 독립운동의 역사도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다. 체험관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영명학교 학생들이 되어서 그날의 벽간 감동을 느껴볼 수 있다.

‘1902. 6. 11 잊지 않겠습니다’

군산 선교여행에서 빼놓지 않고 들려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군산 앞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성서번역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 인근에서 그가 타고 있던 배와 일본선박이 충돌했다. 당시 조난당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등 선실로 내려갔다고 한다. 한국인 조수와 이화학당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한국인을 사랑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흔적을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에서 느껴볼 수 있다. 그의 생애와 선교 활동, 가족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기념관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가던 배의 모습을 본따 만든 모형이 있다. 그 배의 앞머리에 ‘1902. 6. 11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 문구를 읽으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이름들까지도 다시 되뇌며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한 분 한 분 마음에 새겨 넣었다.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리요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리스도’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심리학연구소장)

인간의 몸을 빌려 지상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구약에서 약속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셨다. 인류를 향한 긍휼함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치유의 기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8:17).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마 8:13).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 8:14-15).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마 9:22).

성경에는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런데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시켜주는데, 왜 다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는 것일까? 예컨대 가버나움에서 만난 두 소경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마 9:29) 하시기 무섭게 눈을 뜬다. 반면 예루살렘에서 만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바로 고쳐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고 말씀하신다.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소경은 마침내 앞을 보게 된다(요 9:5-7).

가버나움에서 믿음 있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매달아 내려준 중풍병자를 치료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가 그린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리스도’.

해 주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또 다른 중풍병자를 만나신다. 오늘 묵상할 성경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다. 이 환자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실까?

“네가 낯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등 환자들이 즐비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맨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38년 동안이나 중풍을 앓고 있던 환자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그가 연못가에 오래 누워 있었다는 것도, 그가 오랫동안 중풍을 앓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 이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첫 물음은 이러했다.

“네가 낯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즉시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었다.

오늘 성경본문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스페인의 라파엘로’라고 불리는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1617~1682년)가 그린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리스도’이다. 비록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은 17세기 스페

인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의 그림은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즉각 그의 육체적 질고(疾苦) 이면에 심리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 수십 년 동안의 질병은 그를 육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그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과 자괴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당당히 삶을 살아갈 독립의지를 상실한 채 의타심에 사로잡혀 이런저런 핑계만 대는 온전하지 못한 삶, 파편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병자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있는 이빨이 나간 물병과 밥그릇은 그의 파편적인 삶을 상징한다.

그림을 보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 예수님의 한없이 자애롭고 온화한 표정은 이 중풍병자를 향한 아니 우리 인류를 향한 긍휼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제스처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긍휼과 간절함과는 거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길을 잡고 매달려야 할 그의 양 손이 구구절절 변명을 하며 주춤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침상에 머물러 있다. 그는 몸뿐 아니라 마음을 침상에 스스로 결박해 놓은 상태다.

여기서 ‘침상’ 혹은 ‘자리’는 중풍병자의 육체적 질병과 심리적 의존성을 동시에 상징한다. 그는 상처에 구애받고 있다. 아니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 걸으려는 병을 고치고 싶

고 말하지만 극히 자아중심적인(ego-centric) 그의 의식은 어느새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갈망에 아찔 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아픈 상처와 상한 마음이 부끄럽다. 이를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내적 억압과 회피를 부추기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기제가 중풍병자의 몸과 마음을 하릴없이 침상에 꽂꽂 묶어놓고 있다.

중풍병자의 이런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예수님은 과연 이 병자가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경직되고 마비된 손발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굳어있다. 그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시작은 이러한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데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믿음, 순종

앞에서 말한 백부장의 하인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고쳐주신 것은 백부장과 여인의 믿음을 이미 확인하셨기 때문이다. 가버나움에서 만난 중풍병자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지붕까지 뚫고 환자를 예수님 발치에 내려놓은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우리가 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강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에야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개는 더럽고 추한 병자 주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늘 주인에게 복종하는 개의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가 무리요는 그 병자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자신의 상처나 상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의지와 의식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시 34:18).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 홀로 울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의 편이 되어라”고 늘 말씀하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제발 피동적으로 누워만 있지 마라.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 걸어가라!”

‘All Nations Market(열방바자회)’ 열린다

11월 3일 오후 12시 온누리M센터

온누리M센터가 양문교회와 함께 ‘All Nations Market(열방바자회)’을 연다. 11월 3일 오후 12시 온누리M센터에서 진행된다.

온누리M센터와 양문교회 성도들, 원곡동 주민들과 베트남, 러시아, 아랍,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중국, 필리핀, 한국 등 총 16팀이 참가한다. All Nations Market에서는 각 나라별 음식과 물품 등을 판매한다.

온누리M센터는 All Nations Market 수익금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Natsagdorj Enkhmaa 목사(몽골)를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010-2959-0817



지난해 All Nations Market에 온 참가자들.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우리를 자유케하는 크리스천 재정원칙

11월 4일 서빙고 한동홀, 12일 서빙고 두란노홀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에서 ‘우리를 자유케하는 크리스천 재정원칙’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4일(월)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 12일(화)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오후 7시 20분에 열린다.

‘중장기 현금흐름으로 살펴보는 가정경제’, ‘충성된 종-마음의 중심

을 놓지 않는 투자방법’ 등을 주제로 박상훈 소장(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mayoh@naver.com)이나 웹페이지(<http://naver.me/xLRUVPw1>)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3125-3434, 3436

온누리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23일 오후 4시 동자아트홀

2019년 온누리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23일(토) 오후 4시 서율역 지하1층에 위치한 동자아트홀에서 열린다.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온누리교회가 섬기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과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임정열 장로(장로합창단 총무)는 “올해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면서 “다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참가자 교육 실시

실행위원장 나카테 목사 등 160여 명 참석

러브소나타 서울본부가 지난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참가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기원 목사, 나카테 목사(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실행위원장), 유의준 장로, 참가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 교육에

서는 일본 기독교 역사, 참가 일정,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 등을 배우고 중보기도 했다.

나카테 목사는 “많은 분들이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만큼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마모토 기 · 도 · 제 · 목

- 10월 27일(주일) 러브소나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 10월 28일(월) 구마모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 10월 29일(화) 준비위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 10월 30일(수)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들의 마음이 녹도록
- 10월 31일(목) 출연진과 봉사자, 스태프들이 새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도록
- 11월 1일(금) 가스펠 나이트 교회 세미나 리더십 포럼에 성령이 함께 하시길
- 11월 2일(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7731	방은희	강남A	1137763	장예림	허브
1137733	김영식	고양은평	1137764	김하경	허브
1137734	오은숙	분당B	1137765	문윤자	강서
1137735	홍영광	Gil	1137767	최영지	도곡
1137736	이미경	Gil	1137769	허명학	하나
1137737	이미랑	Gil	1137770	허준	인천Web
1137738	최정석	Gil	1137771	김영제	인천Web
1137739	이은주	양지 동누리	1137772	김유진	인천Web
1137741	서희숙	강동 믿음	1137773	염주희	인천Web
1137742	주옥순	동대문중앙	1137774	김지선	강남B
1137743	최현정	S브릿지	1137775	이주혜	마포
1137744	박세연	J4U	1137784	최성하	양지 서누리
1137745	조소현	J4U	1137785	한정원	무궁동체
1137746	방승호	J4U	1137786	문한솔	서산온누리
1137747	김마누엘	중국어예배	1137797	박현미	송파A
1137748	WEN YUANPING	중국어예배	1137798	QUAN GUOXING	중국어예배
1137749	YIN TE	중국어예배	1137799	LI YANLING	중국어예배
1137750	안현주	S브릿지	1137800	PIAO XING	중국어예배
1137751	이원희	관악금천	1137801	LI GUANG	중국어예배
1137754	최유주	인천 동누리	1137802	YIN WEIHONG	중국어예배
1137755	김하은	여호수아	1137803	여정임	성북
1137756	정성범	여호수아	1137804	JIN DONGLIN	중국어예배
1137757	박찬우	여호수아	1137805	XU TINGTING	중국어예배
1137758	박성연	여호수아	1137806	MIAO LU	중국어예배
1137759	임성현	여호수아	1137807	SHEN YILIN	중국어예배
1137760	박솔이	여호수아	1137808	WU JINGQI	중국어예배
1137761	황보성민	여호수아	1137809	최선미	강남B
1137762	장진혁	평택	1137811	송옥분	부천 믿음

‘알콩달콩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학교에서 ‘알콩달콩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동안 포천 더생명나무집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다. 회비는 없다.

알콩달콩부부학교는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부부학교이다. 성경적 가정관, 부부의 성, 재정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EHS훈련 참가자 모집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4일부터 12월 15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에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의 문제’, ‘당신 자신을 알라’, ‘나아가기 위해 뒤돌아가기’, ‘여정 중에 벽 통과하기’ 등을 주제로 9주 동안 강의를 이어진다. 박성천 목사가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10월 31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2만 원.

문의: 010-8950-4237

포에버성가대 정기연주회

11월 9일 오후 5시 서빙고 경찬홀

제8회 포에버성가대 정기연주회가 11월 9일(토)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홍용식 성가사가 지휘하고, 우경진 반주자가 반주한다. 라파엘 앙상블, 온누리햇살남성합창단, 필그림 아카데미 기타 앙

상블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포에버성가대 단원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6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오디션은 찬송가와 자유곡을 한 곡씩 준비해 오면 된다.

문의: 010-8968-7641

강동 사랑부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 오후 4시 강동 온누리교회 본당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합창단이 제4회 정기연주회 ‘동쪽하늘 무지개를’ 개최한다. 11월 2일 오후 4시 강동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 다.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합창단

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꿈꾸지 않으면’, ‘과수원 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등 15곡을 노래한다. 간파빠아 합창단과 사랑부어머니 합창단도 함께 공연한다.

세례명단

■서빙고

김희전 801021
손호영 850424
송영재 810707
윤여동 931017
조환임 590401

유아

강예린 181017
강승훈 최은정 181025
김복사 181025
김은서 최아사 180203
김찬우 171210
김봉석 김하정 171228
박사람 171228

유아

박상준 이우진 171121
박이안 171121
박대훈 이아영 171222
손예린 171222
손준호 류연화 180926
이우진 180926
이호준 이호선 180106

이현민 171115
이경준 정혜림 171203
조은율 171203
조재현 박혜연 171206
한지을 171206
한승진 김보라

■양재

노윤지 901228
손종우 810205
임은선 820308
임희균 750625
정경옥 490928
진병수 770629
최윤정 670405

유아

권기쁨 181114
권오영 정인에 180219
김은소 180219
김승진 강주연 180508
노하준 180508
노용승 임은경 180106
민준기 180106

민병권 고민재 180917
박재우 180917
박병준 유지영 180512
이기훈 180512
이왕섭 이나영 181126
이노을 181126
이광로 양다솜 171001
이광제 김영미 180511
이하은 180511
이상현 임은선 180129
이하은 180129
이세환 명지혜 181030
조윤 윤진영 181018
최서이 181018
최호상 류혜석

입교

강유진 930620
박종진 870420

W

류명수 790920
마종숙 750303

SNS

김진수 930709
이지영 901025

입교

강지현 920421
김진겸 910908
장은혜 890326

■대학청년부

표진경 870203

■ 세례 간증



/ 김희전 성도(S브릿지공동체)

“너는 더 이상
영적고아가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한창 세상의 단맛, 쓴맛을 알아가던 10년 전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나도 모를 이끌림을 따라 어느 교회에 가게 되었다.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며 밝은 길을 따라 간 그 교회에서는 한창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했다.

‘와, 저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시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잔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다. 나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유는 따로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주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바로 그 하용조 목사님이다.

우리 집은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불교신자이다. 그런 집안에서 유별나게 나 홀로 크리스천의 길을 선택했다. 사실 나는 스무 살 때부터 매년 재미삼아 점집을 전전했던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점을 보았을 때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

“네 안에 십자가가 있어! 이제 점은 그만 보거라!”

이제 와서 생각하니 참 융한 점쟁이가 아닐 수 없다. 그 후로 10년, 홀로 고아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다 올해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 숨통이 막혔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인을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섬기고 싶다. 세례를 통해 죄 사함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

인간의 삶은 항상 좌충우돌 혼란의 연속이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은 분명 버터넬 가치가 있는 삶이다. 내게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 드린다. 부모의 마음으로 대가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으며 베드로의 그물을 던진다. 그 그물 안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때에 준비해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애녹, 유니스 선교사(스리랑카)

“땅을 속아 내는 땀방울...”

학교 안에 위치한 저희 사택 앞마당에는 작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잔디가 예쁘게 자라고 미모사, 민들레 풀씨와 메뚜기도 있어서 생태체험터 같은 곳이었지요. 햇빛과 비가 풍성한 스리랑카는 한 달이면 짧게 깎인 잔디가 무릎까지 자라고, 끝없이 지네가 쏟아져 나오는 무서운 곳이라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뿌리 있는 상추와 파를 심어봤습니다. 잔디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상추와 파도 무럭무럭 자라겠지 하는 초보 농사꾼의 용감한 도전이었지요. 그런데 상추 뿌리는 계속 썩어들기만 하고, 파는 키가 자랄 기미가 없이 점점 노래 지기만 하고, 소복이 흙을 덮어둔 감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가 너무 쏟아지는 날씨도, 너무 짙은 비치는 햇빛도, 지네만 득실거리고 잡초와 돌이 가득한 이 땅은 채소들이 자라기에는 역부족인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에이 채소 그거 그냥 사다 먹자!” 하며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도시 남자 남편은 어쨌든 쉬이 포기하지 않더군요. 시간되는 대로 땅에서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열심히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 썩히고 땅을 속아

내기를 몇 달 동안 반복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집 앞마당에는 지네 대신 지렁이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사광선을 살짝 피해 옮겨 심은 파는 몇 번 잘라먹고도 제법 새로 파랑계 계속 올라오고, 잡초는 현저히 그 양이 줄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울림들이 모여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열매를 내지 않아도 그저 썩어져 토양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구나 싶어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어도, 욕을 먹어도 포기하지 않고 땅을 속아 내는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울림을 줍니다. 아직은 작은 땅도 반이 되지 않는 공간 밖에 속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바심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스스로 나고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도 나의 종교는 불교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곳 스리랑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땅을 속아 내고 썩어지는 땀방울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 SNS공동체 Acts그룹 수련회 간증



/ 임나래 순장(SNS공동체)

최고의 순원들에게

SNS공동체 Acts그룹 소속 청년 120여 명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남한산성 ‘목상의 집’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11월 순개편을 앞두고 지난 한 해를 함께한 순원들과 보내는 마지막 소풍 같은 시간을 기대하며 참여했다. 교회에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목상의 집은 아직 단풍이 내리지 않아 푸름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예배 후에 세 가지의 선택 주제와 함께 자연 속으로 흠어져 개인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수많은 미디어와 끊임없는 관계 속에 노출된 삶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단을 수 있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내면의 소리마저 잠잠하게 했다.

저녁식사 후 이어진 예배에서는 이진기 전도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37절을 본문으로 ‘가치의 역설’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전도사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청년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섬김을 통해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 됨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실제 삶으로 살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이었다. 어떤 축복의 설교보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했다.

우리 순원들은 모두 올해 처음 온누리교회 새식구가 된 청년들이다. 매년 수백 명의 새 가족이 공동체에 오지만 모든 인원이 정착하지는 못한다. 새가족등록 과정부터 함께한 순장으로 우리 순원들에게 온누리교회 SNS 공동체에서의 시간이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각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묵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훗날 목상의 집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어느 날, 공동체라는 숲 속에서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난 사랑 하는 순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목상의 집을 방문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을 빌어 부족한 순장을 도와 한 해를 함께해준 최고의 순원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한다.

■ 본부 110기 사모 어머니학교 간증



/ 민경혜 사모(경기제일교회)

주님이 하셨다

나는 어머니학교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그 경험이 어머니학교를 10년 넘게 섬기는 원동력이 되었다. 작년 어머니학교를 마친 직후 ‘2019년 사모 어머니학교’ 진행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부터 1년에 한 번 씩 소풍 나오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섬기던 어머니학교를 1년 내내 섬겼다.

본부 110기 사모 어머니학교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사모 어머니학교에서는 참가자 35명을 무료로 섬겨야하는데 필요한 재정 때문에 염려와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작년에 함께 섬긴 사모님들과 바자회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우리는 1월부터 7월까지 바자회를 열었다. 감사하게도 바자회 수입과 후원으로 모든 재정이 채워졌다. 사모 어머니학교 준비가 순항이라 여길 즈음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 지원자들의 취소가 계속 되었다. 마음 졸이며 시작된 사모 어머니학교 첫날, 찬양을 하는데 참가자들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나눔과 고백이 흘러넘쳤다.

딸이 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

매님,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매님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고백, 이혼 위기를 겪다가 회복한 자매님, 남편의 외도사실을 7년 동안 숨긴 채 아파한 자매님 등 풍풍 뭉어둔 사연들이 터져 나왔다. 찬양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기도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기도가 계속 이어졌다. 나도 하나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사모님들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드렸다. 모든 참가자들이 사모 어머니학교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보고 돌아간 것 같다.

나는 이번 어머니학교에서 처음 진행을 맡아서 너무 긴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걸음마를 떼게 해주셨다.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큰 자리에 세워준 어머니학교 운영팀에게 감사를 드린다. 스테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느낀다. 일 년을 도와준 어시스턴트와 팀을 잘 운영해주신 팀장님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린다. 수많은 점이 모여 선을 이루듯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모 어머니학교가 새겨진 줄 믿는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

장로칼럼

건강한 관계의 비결



김현 장로
(강촌공동체)

“관계가 모든 것이다”라는 격언(格言)이 있다.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이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관계가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갈등 속에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갈등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입힌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 갈등을 더 의미 있고 깊은 관계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력(根力)이 필요하다. 허리가 아플 때 수술하는 방법은 가장 직접적인 문제해결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허리의 근육을 강화해서 연약한 척추를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자기치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며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경계해야 할 것과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 ‘나의 나다움’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참모습’을 헤아릴 준비가 된 것이다.

둘째, ‘문제’ 보다는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관계는 영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과 같다.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문제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건강한 관계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보다는 관계 즉,

소중한 사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한 관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배려의 대표적 표현은 경청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넷째,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잠언 16:7)고 했다.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이뤄진다.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함께 승리하는 관계를 이뤄나갈 새 힘을 얻는다. 인간관계 속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다. 인간관계가 영적 성숙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이유다. 성숙은 관계를 통해 측정된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은 자신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서 산다.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은혜의 십자가는 두 가지 관계의 축을 보여준다.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이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참 능력이 된다. 건강한 관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인생의 황금률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4)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다.

권사칼럼

말씀보내기 사역



주주임 권사
(분당A공동체)

하나님께서 학 교복음화를 위해 내게 교사라는 직업을 주셨다. 내가 광명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였다. 불교신자였던 과학 선생님께서 몸이 아프다고 하셨다. 나는 그 선생님께 교사들 모임에 나오시라고 권했다. 그 모임은 신우회였는데 뜻밖에도 쉽게 나오셨다. 그분과 친해지면서 교회에 나가시기를 권했더니 집에서 가까운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셨다. 온누리교회에 여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도 해드렸다. 그분은 틈틈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서 믿음을 키워가셨다.

어느 날 그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다고 하셨다. 나에게 “짧은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절씩 보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셨다. 갑작스런 부탁에 고민이 되었다. 매일 어떤 말씀이 그분에게 필요한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 짧은 성경 말씀을 찾고 일일이 문장을 완성해서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숙제 아닌 숙제를 위해 본의 아니게 성경을 세밀하게 읽게 되었다. 그분에게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드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기가 너무 아까웠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보내기 시작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았다. 나중에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긴 성경문장도 보낼 수 있었다. 가족들,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과 제자들, 선교사님들과 교회 여러 활동으로 알게 된 분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 말씀을 보내는 일이 나의 매일 아침 일과가 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말씀을 보내는 일이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다 보니 간혹 빠뜨리고 못 보낸 경우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연락이 온다. 멀리 전주에 있는 친척 장로님이 핸드폰을 바꾸셨는데 말씀이 안온다고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다. 아직 믿지 않는 여고동창생에게 말씀을 빼먹고 못 보냈더니 학교까지 연락이 와서 빨리 말씀을 보내주라고 부탁을 받기도 했다. 내게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는 사역으로 키워 가심을 깨닫게 되었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 말씀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이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낸다면 한계가 있고, 별 영양가가 없어서 싫증이 날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누구에게는 교훈으로, 어떤 이에게는 책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될 것을 믿기에 말씀 보내기를 하루도 쉴 수가 없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3)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다. 내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것을 기대한다. 오늘도 새벽예배를 마치고 걸어오는 길에 부지런히 말씀을 찾고 심는 일에 열심을 내어본다.

신앙에세이



김성욱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차세대)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로 유명한 만화 <피너츠>는 연재를 시작한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비록 지금은 연재가 끝나고, 작가 찰스 슈츠는 2000년 2월 생애를 마감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과 독자들에게 만화책, TV, 뮤지컬,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애니메이션으로 극장에서 개봉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작가 찰스 슈츠는 만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냈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다음세대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린 위로의 만화가로 유명하다.

<피너츠>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은 꿈이 있지만 실수투성이다. 스누피는 재능은 많지만 한낱 강아지로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우드스탁은 날아야 하는 새인데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패티는 빼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라이너스는 애착담요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을 찾는다. 다양한 캐릭터들은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동질감과 친근감을 주면서 인기를 끌었다.

어릴 시절 브라운관에서 본 찰리 브라운은 나에게 있어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한 캐릭터였다. 부족하지만 웃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받는 캐릭터들의 스토리가 계속 만화를 보게 만드는 재미있는 소재였음이 틀림없다. 그 중에서 유독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다. 라이너스다. 애착담요의 주인이다. 애착담요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어린아이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친구들이 불안해하는 라이너스의 애착담요를 함께 찾으러 가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기독교 상담가 위니캇은 아이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담요조각을 ‘중간대상’이라고 불렀다. 중간대상은 어머니가 아이 곁에 함께 있는 상태,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물건이다. 아이는 중간대상을 통해서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의 냄새와 따뜻함을 연상한다. 마침내 엄마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착담요와 장난감을 통해서 엄마의 안정감을 누린다.

위니캇은 이 중간대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는 보

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다. 아이는 주 양육자를 통해서 5-6세가 되기 전에 이미 부모, 십자가, 떡과 포도주와 같은 기독교적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을 인식한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몸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신 사랑을 느낀다.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간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찰스 슈츠는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너츠>를 그렸다. 찰스 슈츠가 라이너스의 애착담요처럼 이 만화가 중간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세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간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간대상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회개(7) 타락한 몸의 행실 죽이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성도를 징계했으니 동일한 명령으로 주어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성도도 징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술 취한 것을 잘했다거나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과 반대되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죄를 죽이십니다.

죄의 뿌리와 습관에 대한 실제적 역사

둘째, 죄의 뿌리와 습관에 대해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죄의 뿌리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의 행실의 무서움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보다 깨닫지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행실과 육신의 뿌리까지도 태우시고, 소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제도와 결심으로도 부서지지 않는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비취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강력한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줄도 모르고 낫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야 하는 순간에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났는데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성령님께서 치유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죄의 뿌리를 치료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심으로 죄를 죽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모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소원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알아서 행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 몸과 감정을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먼저 두들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겠다는 소욕을 일으키시고, 기도와 결단을 하게 하며, 의지를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과 회복, 거룩한 성화와 회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와 함께,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중물 넣기

죄악 된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중물을 넣는 것입니다. 그 마중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마중물을 넣어야 합니다.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참된 회개의 체험을 통해 타락한 몸의 행실을 버리고 죽이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즐겼던 몸의 행실에서 오는 향락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체험했습니다. 농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놓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다주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참된 회개의 이면에는 어머니 모니카(Monica)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의 참된 회개를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은 이후 오스티아(Ostia)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과 마지막을 보내는 여정에서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더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남아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임종 직전 이런 부탁을 아들에게 남깁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해 조금도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마라. 단 한 가지만 부탁을 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아들의 참된 회개를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모니카가 죽기 전에 아들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고백록〉에 남겨 수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개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내쫓고 죽이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불만한 공연 뮤지컬 ‘천로역정 시즌6’

성경 다음으로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이 바로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이다. 〈천로역정〉 1부에서는 순례자 필그림이 천국도시로 가는 여정을, 2부에서는 순례자 필그림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이 함께 천국도시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뮤지컬로 만나 볼 수 있다. 극단 ‘조이피플’이 북촌 아트홀에서 12월 31일까지 뮤지컬 ‘천로역정’을 선보인다. 극단 조이피플은 지난 6년 동안 1천회 이상의 공연 노하우와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다.

뮤지컬 천로역정은 원작에 가까운 대사와 줄거리가 특징이다. 천로역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은 대사와 25곡의 넘버가 단연 압권이다. 각색과 연출을 맡은 서은영씨는 “원작의 줄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원작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것이 이번 뮤지컬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천로역정의 주요 줄거리는 필그림의 순례 여정이다. 타락의 도시에 살고 있는 순례자 필그림이 도시가 곧 멸망한다는 경고를 받고 하늘의 성을 향한 여행길에 나선다. 필그림은 낙담



뮤지컬 〈천로역정〉의 한 장면.

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아불루온과 결투를 벌이며, 허영의 시장을 지나 생명이 있는 천성으로 향해 나아간다.

필그림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 순례자 필그림

하늘의 성을 향한 귀한 발걸음

이 하늘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필그림은 하늘의 성으로 향하면서 위험천만한 고비들을 만난다. 조언해주는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 누리꾼 dsaq****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란 어떤 것인지, 왜 큰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인지 많은 생각과 결단을 하게 한 좋은 뮤지컬”이라고 후기를 남겼다. 뮤지컬 천로역정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넉리스천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넉리스천들도 살면서 고난을 만나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 bkw7****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이 관람해도 좋은 공연”이라고 평가했다.

주인공 필그림 역은 김솔로몬과 이수람, 믿음 역은 박민규, 정록, 소망 역은 김성진, 김수현, 전도자와 아불루온 역은 김현국, 김성호, 이쪽저쪽 역은 김성웅, 권영은, 세속현인과 여인 역은 김은정, 박하빈, 아첨쟁이 코러스는 박다빈, 정현희가 연기한다.

공연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12시와 3시에 시작한다. 네이버, 인터파크, 갯피플, 북촌아트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2-988-2258

14 온누리신문

2019년 10월 27일(주일) | 제1267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열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틀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서빙고 창조신앙스쿨

일정: 10월 20일~11월 17일 매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

문의: 010-7292-2349

온누리남성성교합창단 단원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문의: 장상규 총무 (010-4731-6514)

홈페이지 참조 ommckr

온누리선교재단 재산종합보험 업체

선정

계약: 2020년 1월 1일~2021년 1월 1일(추

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대상: 62건(첨부자료 참조)

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

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대한손해

보험협회 가입된 정회원 손해보험사, 지급

여력비율 180% 이상인 업체

문의: 양화찬 대리(02-3215-3134)

*자세한 사항은 BNIS 입찰정보

(http://www.bnis.co.kr) 참고

CMN 라파엘 치과외사 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2, 3째 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안산M센터(외국인 무료진료)

분야: 치과외사, 약사, 간호사, 일반봉사자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방: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CGNTV

한국을 사랑하는 조셉 붓소의 길거리 전도 프로젝트

시즌 2

붓소핵심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전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1월 1일 금요일, 유튜브 '**KNOCK 노크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JESUS
유튜버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 공개 버스킹 공지 ※

조셉 붓소의 버스킹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홍대입구역 ③번 출구 앞 버스킹 존 1**